



## 사랑방

#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준 한의원

사연자: 인천광역시 전\*영 님

### 태권도학과 입시 준비의 압박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 중인 20대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며 입시를 준비 중이었어요. 당시 제가 지원한 학교는 태권도 겨루기와 품새 실기시험을 모두 봐야 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태권도를 시작한 시기가 늦은 편이었던 저는 실기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사실 태권도로 전공을 정하기 직전까지 육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발목 인대 수술을 한 터라 조금만 마음도 컸습니다.

*“이대로 입시에 실패하면 어쩌지?”*

그때의 저는 정말 큰 정신적, 신체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 같이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고, 다시 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몸의 통증이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린 곳이 한의원이었습니다.



### 어머니처럼 맞아준 한의사 선생님의 위로

한의원을 찾게 된 계기는, 양방 병원에서 발목 인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한방 치료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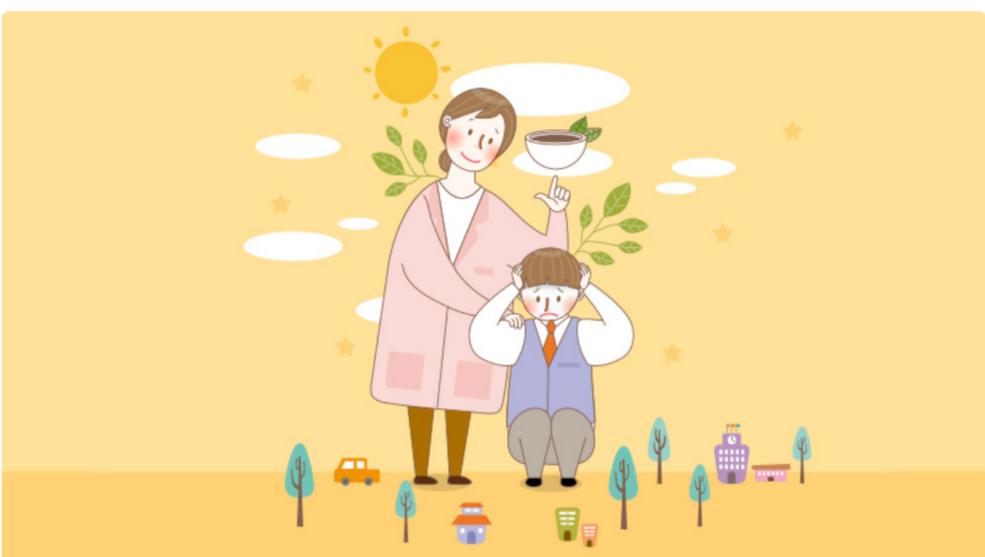
체대 입시 과정에서 생긴 통증을 관리해야 했고, 수술 후 관절과 근육이 굳지 않도록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양방에서는 물리치료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찾은 한의원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곳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온 곳이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만나게 된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해 보여서 인지 더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받을 때 마다 늘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제 어깨가 축 처진 날에는 작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툭 놓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약보다도 그런 진심 어린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한의원에서 수술했던 발목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았고, 연습하다가 손목을 빼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의사 선생님은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통증도 마음도 함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 삶을 따뜻하게 채워준 소중한 시간

그 이후로 저는 태권도 학과 입시에 무사히 합격해 지금은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한의원을 찾고 있어요. 이사를 하면서 한의원에서 꽤 멀어졌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방문해 진료 받는 것을 제 삶의 루틴 안에 포함했어요. 멀리서도 일부러 시간을 들여 그 한의원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만큼은 제 자신이 온전히 존중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의 의료진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실력이 좋으셔서 신뢰가 가고, 특히 한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침을 맞으며 한의사 선생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이 때론 친구 같고 어머니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느 날은 제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시간은 길이보다 깊이의 문제’라고요. 그 한의원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치료를 받은 몇 년이 아니라, 제 삶의 한 귀퉁이를 따뜻하게 채워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인생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그곳만큼은 오가며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나의 한의원이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느낀 따스한 온기와 든든한 힘이 제가 다시 세상으로 비상할 수 있게 해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